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화합

3일 성안교회서
‘사랑나눔콘서트’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나눠 어려운 이웃과 얼굴을 마주해 온 제주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고, 봉사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지역의 나눔·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랑나눔 콘서트’가 오는 3일 오후 5시부터 제주성안교회 지하 강당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와 제주의소리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도내 자원봉사자들과 꾸준히 사회복지활동을 위해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후원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작나무 숲’ 대표이자 피아니스트인 이상임씨의 사회로 제주지역에서 음악활동

과 더불어 재능봉사를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2007년 11월 음악을 통한 사회봉사와 공연문화발전을 위해 제주MBC악단장 김용형씨를 주축으로 창단된 ‘제주빅밴드’가 신나는 브라스 앙상블로 흥을 돋운다.

20여 년간 꾸준한 수화봉사로서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수화 봉사 동아리 ‘뽀난소리’는 아름다운 노랫말에 맞춰 수화로 음악을 전하며 ‘보이는 음악’을 선보인다.

또 장애·비장애, 남녀노소 구별없이 음악으로 하나가 된 노래패 ‘사람사이’는 포크기타 반주에 맞춰 중창을 선보이며, 관객에게 재능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 18년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라윈드앙상블’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한다.

‘삼춘, 곤뽕’ 등 제주어 노래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양정원씨가 흥겨운 무대를 선보이며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행사는 제주지역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봉사

의 기쁨과 후원의 참의미를 나누고자 기획됐다. 재능기부를 통해 봉사활동을 해 온 지역의 예술인들이 공연을 꾸미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객석을 채움으로써 사랑나눔 실천을 해 온 이들에 의해, 그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또 사회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배지도 지급된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김수열(서문식품) △제주특별자치도청 존샘봉사회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강화선(한마음봉사회) △양복자(좋은인연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김복순(좋은인연봉사회) △김정순(손뜻모아봉사회) △전복희(발사랑봉사회)



삼성화재 ‘사랑의 쌀’ 제주도에 전달

저소득층노인에 제공예정

삼성화재해상보험(주)(대표이사 지대섭)는 11월 4일 제주도청을 방문해 우금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사랑의 쌀 250포(20kg, 1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삼성화재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랑의

쌀을 마련했고, 장기근속 우수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 2박3일간 제주를 찾은 기회에 제주도에 기탁하게 됐다.

삼성화재가 기탁한 쌀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가 운영하는 푸드마켓을 통해 2kg 단위로 재포장돼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제공된다.

초등학생 복지교육 교재 ‘복지여행’ 발간



교육 교재인 ‘복지여행’ 1000권을 발간했다.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다문화 ▲자원봉사 및 나눔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된 ‘복지여행’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의 지원을 받아 사회

복지학과 교수들이 내용을 구성하고, 아동문학가 등의 감수를 거쳤다.

‘복지여행’은 내년부터 초등학생 복지교육 교재로 사용된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2008년부터 ‘찾아가는 초등학생 복지교육’을 시행, 아동기의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중심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2011년 사회조사(나눔문화)결과
시설 탐방-제주특별자치도인복지관

■ 사회복지소식 4·5면
사람책 도서관 캠프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오픈데이

■ 오피니언 6면
칼럼·기고

■ 특집 7면
인권위 설립 10주년 토론회

디자인 열림
**DESIGN
YEOLL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3동 2730-4번지
Tel, 064-746-0775 Fax, 064-746-0774

열린시각 열린공간 열린사고

“열림이 생각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국민 36.4% “지난 1년간 기부해 봤다”

40대 가장 많아...37.3% “유산 기부 의향”

13세 이상 국민 100명 가운데 36명은 지난 1년 동안 현금이나 물품 등을 기부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7.3%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해 7월 15일부터 1년간 13세 이상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해 11월 24일 발표한 ‘2011년 사회조사(나눔문화) 결과’에 따르면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은 36.4%로 나타났다. 기부는 개인이나 단체에 현금이나 물품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교단체 운영 목적인 현금·시주, 정치인을 위한 정치후원금,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는 포인트 기부 등은 제외된다.

기부경험은 40대가 45.7%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이 24%로 가장 적었다. 기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중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62.6%)가 가장 많았고, 10대의 경우에는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기부방법을 몰라서’ 등의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금을 기부한 사람은 34.8%로, 2009년(32.3%)에 비해 2.5%포인트 증가했다. 현금 기부자의 1년간 평균 기부 횟수는 6.1회,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16만7000원이었다. 현금을 기부한 사람 중 31.2%는 주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기부자는 8.5%로, 물품 기부자의 34.6%는 음식, 옷, 장난감 등을 주기적으로 기부했다. 1인당 기부횟수는 평균 3.4회였다. 기부 이유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가 43.3%로 가장 많았고, ‘기부단체·직장 등 요청(28.3%)’, ‘개인적 신념(14.9%)’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37.3%에 달했다. 유산기부 의향은 연령층이 낮을수록 높았다. 60대 이상은 78.8%가 부정적인 반면 10대는 49.2%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세대간 인식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54.8%가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를 꼽았다.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9.8%로 2009년(19.3%)에 비해 0.5%포인트 늘었다. 평균 참여횟수도 7.1회로 2009년(6.6회)보다 증가했다. 1회당 평균 참여시간은 4.4시간이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분야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과 관련된 분야’가 절반 이상(58.2%)을 차지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는 15.9%로 나타났으며, 이중 ‘아동학습지도’가 24.1%로 가장 많았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복지부장관상 수상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 10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 주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11월 14~15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1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관리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유관

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사회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 아동·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예산 추가지원과 인력충원이 반영돼 아동학대예방과 학대피해아동보호사업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6년 10월에 개소한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9년 처음으로 시행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듬해에는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학대피해아동 전용 그룹홈(아이옴)이 전국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 그룹홈으로 선정됐다.

일배움터 ‘맛있는 커피’ 이동카페 운영



일배움터(원장 최영열)는 지난 5월부터 여성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모두 끝내고 이동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이동카페를 처음으로 운영한 데 이어 사회복지사대회, MBC사랑나눔바자회 등 각종 행사에서 맛있는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6080봉사회 태고원서 봉사활동

영락종합사회복지관 6080봉사회(회장 이성로)는 매월 넷째 수요일 제주태고원을 방문,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6080봉사회는 항상 싱글생글 웃는 얼굴로 태고원을 찾아 ‘웃음봉사회’라고도 불리며, 춤과 노래, 장구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여성폭력 근절 부수적으로 취급하면 안돼”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토론회

이선화 의원실과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가 주관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여성문제 전문변호사는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은 사회적으로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은 변할 수 있다”며 “정치적인 의지와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들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데 사용될 자원이 배정은 여성폭력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를 근절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또 “양성평등 보장 및 여성폭력 근절을 선택적이거나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해서는 안되고, 여성폭력 해결은 부문을 아우르며, 공조적이며, 다부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가족사랑센터 허순임 원장은 “생애주기별, 소외집단, 지역에 따른 가정폭력의 실태를 조사해 제주도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한 ‘여성폭력 지원 매뉴얼’ 제정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제도의 강화 ▲가정폭력지원기관에 대한 가정폭력 인식 교육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제언했다.



“UD설계로 행복한 사회 앞당길 수 있어”

유니버설디자인 토론회 및 전시회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 김태석·박주희 의원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11월 3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유니버설디자인 토론회 및 전시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정지영 서울DPI 사무처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운동의 미래’ 주제발표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은 중증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인식의 전환, 모든 시민들의 복지를 고민하는 자세, 다양한 건축시설물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업체들의 협치를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또 “유니버설디자인의 목표는 사람들의 신체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약간의 경미나 혹은 추가경비의 부담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100%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하나의 해결책이나 사이즈가 누구에게나 맞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은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정 처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설계로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협의회 2011년 10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900,000	900,000
난치병환아후원	80,000	0
자원봉사후원	510,000	510,000
복지사업후원	1,076,547	1,766,670
푸드마켓후원	6,626,260	4,095,86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설 앞방

(49)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취미·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노인들의 행복한 쉼터로 자리매김

닫혀 있던 욕중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경쾌한 음악소리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강사의 말과 동작에 따라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이들은 다름 아닌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었다. 어림잡아 50여명은 족히 넘을 듯했다.

이들은 낯선 이가 불쑥 찾아온 줄도 모르고 오로지 음악과 춤에만 몰두했다. 말 그대로 아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11월 18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관장 유완스님) 3층 다목적실에서는 에어로빅 수업이 한창이었다. 같은 시각, 1층에 있는 수라간(식당)에서는 서예 수업이, 2층 정보화교육실에서는 컴퓨터 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지하 1층에서는 당구를 즐기고 있는 어르신들이 눈에 띄었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종합 복지시설이다. 지난해 11월 23일 문을 연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이 제주도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노형 근린공원 인근 구지 1928㎡에 들어선 노인복지관은 건물 연면적 1319㎡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상담실, 다목적실, 교육실, 식당, 물리치료실, 탁구실, 당구실, 이·마용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다.

개관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회원만 540여명, 하루 평균 이용객은 150여명

에 달한다.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객들이 몰리고 있다. 그도 그런 것이 남부럽지 않은 시설을 갖춘 데다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다. 체조,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요가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노래교실, 악기연주교실, 시예교실 등 취미여가 프로그램, 그리고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교실, 명리학교실, 정보화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물론 취업·법률 문제 등과 관련된 각종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바둑이나 장기, 탁구, 당구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여기에 각종 운동기구가 배치돼 있고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노인복지관이 지난 10월 이용자 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유익한가'를 묻는 질문에 94.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복지관 이용이 삶의 질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의견도 92.5%로 조사돼 복지관 이용에 따른 만족도가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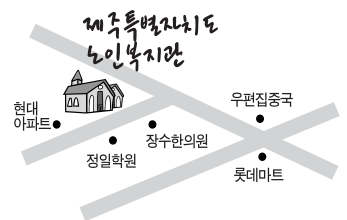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3월 제주시의 노인일자리사업 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일자리를 원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역아동센터 학습보조 도우미 또는 아동들의 귀가를 돕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있다. 근무 형태는 주 3일(적일제) 근무이며, 하루 3시간 일한다.

노인복지관은 11월 23일 개관 1주년 기념식을 겸해 그동안 어르신들이 갖고 담은 에어로빅과 민요, 스포츠댄스, 난타, 하모니카, 체조, 기타연주 등의 실력을 뽐내는 작품발표회를 가졌다.

만 60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1만원, 식당 이용료는 한 끼당 2000원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다. 이용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문의=727-4500~1.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창출 '톡톡'

1297명에 일자리 제공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 건강과 소득을 함께 보장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시니어클럽이 지난 10월부터 1297명(제주시 560, 서귀포시 381)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보금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는 시니어클럽은 2곳(제주시 1, 서귀포시 1)이 지정돼 각각 11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에는 공익형·복지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로 취약자를 제한,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령령층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노인교통 안전지킴이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도우미 ▲지역아동센터 놀고미 등이 있다. 교육형의 경우 자신의 경력과 지식을 전담함으로써 세대간 문화전승 효과는 살리고 참여노인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어르신의 자존감 고치는 물론 1·3세대간 교감형성을 통한 세대간 갈등 해소에 한몫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실버선생님, 손주사랑 교육강사, 시니어 관광도우미 등이 있다.

또 조끼·개량한복 등을 제작하는 두레사업단과 초등학교 청소용역사업인 말꼬미사업단 등 시장형 일자리사업, 농가 일

손을 돕는 나누미사업단과 시니어인력뱅크 등 인력·과전형 사업도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일을 통한 소득 보충, 적극적 사회참여와 건강 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에도 노인에게 적합하고 수익성과 어르신들의 전문경력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 확대하는 한편 민간기업 등과의 연계성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39회 어버이날에 제주시니어클럽의 '시니어손바집'이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회복지9급 공무원공채 경쟁률 38.8:1

10명을 뽑는 사회복지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388명이 지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8일부터 3일간 인터넷을 통해 원서접수를 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38.8: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사회복지 9급 경쟁률 16.5:1(12명 모집에 198명 지원)보다 갑

절 이상 높은 수준이다.

모집단위별로는 제주시(사회복지일반)가 3명 모집에 243명이 지원해 81: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서귀포시(저소득)는 1명 모집에 2명이 지원해 2:1로 가장 낮았다. 최고령자는 48세이다.

필기시험은 오는 10일 치러진다.

보금자리기금마련 일일장터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동신)와 1318해피존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희영)는 11월 5일 제주시 노형동 성공회 제주성당에서 보금자리기금마련 '일일 맛있는 장터'를 운영했다.

“사람이 책이 되었어요”

남국청소년수련원서 ‘사람책 도서관 캠프’ 열려

“이 캠프가 끝나고 나서 꿈이 생겼어요.” “나에게 어울리는 색깔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좋았어요.” “내 장래희망을 잘 생각하고 끈기있게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겠어요.” “사람책을 직접 만나 많이 물어보고 대답해 주니 정말 좋았어요. 알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 주관으로 11월 11일부터 이틀간 남국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 ‘사람책 도서관 캠프-사람을 빌려 드립니다’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소감이다. 캠프에는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찬란한미래지역아동센터, 제주시청소년자활지원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의 중학생 40여명이 참여했다.

캠프는 다양한 직업인과 직접 대화를 통해 자기의 진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배들의 생

애담 스토리텔링을 통해 청소년들이 꿈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했다.

의사, 초등교사, 영국 런던 국제기능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축구감독, 미용실 원장, 호텔조리사, 친환경농업학교 대표, 프로그래머, 아나운서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람책으로 참여했다.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책을 구성한 이 캠프는 인사나누기 및 친교 시간, 자신의 꿈을 말해보는 자유토론 시간을 거쳐 자신이 원하는 2권의 사람책과 만났다. 사람책 1명과 만나는 시간은 60분 정도로 사람책으로부터 궁금한 것을 알아보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머리를 잘 자르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요리를 할 때



어떤 기분으로 만드시나요?” “방송 일은 어려운가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어떤 회사에 취직할 수 있나요?”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얼마나 잘 해야 되나요?” “굴을 껍질까지 먹어도 돼요?” 등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람책이 된 분들의 생각도 다양했다. 김민경 JIBS 아나운서는 “10대 중학생을 만나 질문하고 이야기하면서 중학생 시절도 다시 떠올리고 지금 중학생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으며, 박수남 흥산초등학교 교사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사람책으로 활동한 나도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전용한 롯데호텔 요리사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일하는 모습도 직접 보여주고 싶다. 환상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다시 해보고 싶다”고 했다.

DAUM프로그래머 허진길 씨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는 질문이 많았다. 내 직업을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직접 보여주면서 하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양연숙 주무관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아닌 지역기관과 함께 캠프를 추진하였는데 학생들의 참여와 호응도가 높아서 만족스러웠다”며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순옥 명예기자〉



‘마주보며 웃는 우리가족’ 실시

서부복지관 한경센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한경센터(관장 안원식)는 지난 8월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 취약한 제주시 한경면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진을 위해 ‘마주보며 웃는 우리가족’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자녀의 성장 및 양육과 관련된 교육인 ‘완소 우리 아이 만들기 프로젝트’,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에서 오는 부부갈등 해소를 위한 ‘마음이 행복해지는 가족상담’, 다문화 가족 남편들의 진단상담 프로그램인 ‘남편들의 수다’로 나뉘어 실시됐다.

이 사업을 담당한 문은정 과장은 “미술치료기법을 도입, 가족구성원이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생각하는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서로를 이해하고 부부간 높은 친밀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소/식/마/당

제남아동복지센터 ‘나눔을 통한 소통’



제남아동복지센터는 서귀포시의 지원을 받아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나눔을 통한 소통’이란 주제로 지역내 사회복지시설과 노인회관을 방문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10월 성요셉양로원, 서호·호근노인회관을 시작으로 정혜재활원, 제일요양원을 방문해 아동들이 직접 구운 빵을 전달하고 난타 및 관현악공연을 선보였다.

어울림터, 아외나들이 행사 진행



어울림터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10월 31일 세계 최대 미로테마파크인 메이즈랜드(미로공원)와 섬지코지를 둘러보는 아외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들이를 통해 동료애를 쌓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증진을 도모하는데 좋은 시간이 됐다.

마구마구야구단 10번타자 공동 3위



제일지역아동센터(원장 박영식) 제일드래곤즈 야구팀은 10월 28일 CJ도너스캠프 주관으로 경기도 고양시 국가대표연습장에서 열린 ‘마구마구야구단 10번타자’ 준결승&결승전에 참가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다음날에는 CJ도너스캠프 후원으로 아동 27명이 코엑스몰 아쿠아리움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한항공 다솜마루와 뷔페나들이



대한항공 다솜마루봉사팀(회장 강정오)은 11월 16일 청암재활원(원장 박광수) 중증장애인들에게 제주KAL호텔에서 점심 뷔페 식사를 대접했다.

대한항공 다솜마루봉사팀은 매년 하반기 뷔페나들이 지원 외에 중증장애로 인해 외출과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청암재활원 생활인들에게 봄소풍도 지원을 주고 있다.

제7회 제주시사회복지사대회 성황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한형범)는 11월 11일 조천체육관에서 사회복지사와 예비사회복지사,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명감 고취 및 윤리의식 강화, 권익향상과 위상 확립의 기회 마련, 상호 교류의 기회 확대 및 친목도모를 위해 열렸다.

1부에서는 혜정원 아가의 집 ‘더 썸’의 공연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사 선서문 낭독, 유공자



표창,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도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 ‘나는 사회복지사다!’ 장기자랑에서 숨겨진 끼를 뽐냈다. 서귀포시장에인종합복지관 ‘티나라’ 팀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아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2011 제주자원봉사자대회 열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대표 김순택)는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기념하고 이웃과 도민을 위해 사회 저변에서 열심히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1월 4일 한라체육관에서 2011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한울간병봉사회의 민요와 청솔적십자봉사단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연 자원봉사자대회는 1부에서는



자원봉사자 표창, 우수 프로그램 공모 입상작 표창, 결의문 채택 등이, 2부에서는 자원봉사단체 노래경연으로 진행됐다.

또 봉사단체 홍보·체험부스가 마련됐으며, 행사장 바깥에서는 나눔장터가 운영됐다.

지역과 소통하는 복지관 만들어요

제주복지관 '오픈데이' 행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은 11월 20일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관 오픈데이(OPEN DAY)' 행사를 진행했다.

오픈데이 행사는 복지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던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을 알리기 위한 행사다. 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안내와 사회교육프로그램 체험, 그리고 사진콘테스트 등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장난감 도서관과 핑크드림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가족교육(엄마랑 아이를 이어주는 마법의 선물), 페이스페인팅, 매직종신, 익살대왕사진 콘테스트, 폴크메모관 만들기 등 다채



로운 행사를 진행해 아동들과 부모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솜사탕, 팝콘, 어묵, 떡볶이 등을 준비한 먹을거리 장터를 열어 지역주민행사가 즐거움을 더했다.

행사에 참석한 지역주민은 "평소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해서 아쉬웠는데, 오늘과 같은 행사를 통해 이웃들과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

어서 너무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기획한 윤은혜 사회복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홍철 명예기자〉

“할인장터 열어 도민들과 사랑 나눴어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제주지역 170여 업체와 함께 11월 18~19일 양일간 제주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사랑나눔 할인장터를 열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사랑나눔 할인장터는 제주지역 업체와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나눔 실천의 장을 통해 '살기 좋은 제주, 더불어 사는 제주'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이번 장터에 기부된 물품들은 고추장, 식용유 등 식료품에서부터 구두, 옷 등 다양한 물품이 시중 가격보다 2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다.

행사를 준비한 윤보철 관



장은 "삭막해져가는 요즘 세상에서 제주도민이 함께 어우러져 따뜻한 정을 나누는 진풍경에 마음 한편이 훈훈해진다"며 "앞으로도 제주도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장애인복지관은 제주도민의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재능·봉사·현금·물품나눔 등 4가지 나눔 테마를 기획, '꿈트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구좌읍 지역아동센터 연합가을운동회 개최

제주시 구좌읍 관내 거점지역아동센터(우도, 종달, 우리하도, 해바라기, 김녕행복한, 신촌)의 연합 가을운동회가 11월 12일 세화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거점지역아동센터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가을운동회는 전통놀이,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들이 풍성하게 마련돼 지역 내 교류를 활성화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장이 됐으며, 아동들은 협동심과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

'어르신과 함께 하는 이동상담사업' 마무리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어르신과 함께 하는 이동상담사업(이하 이동상담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동상담사업은 노인학대예방 차원에서 독거노인 30명(제주시 20, 서귀포시 10)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400회 이상)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됐다.

올해에는 4월 대상자 모집 및 선별기간을 거쳐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행복지킴이단과 함께 주기적인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월 2회 이상)을 실시했다. 상담은 노인 생활 전반의 안전 확인 및 노인학대위험요소 파악, 일반 고민상담 등으로 이뤄졌다. 상담 결과는 월 단위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되며 대상노인



에게 위험요소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보고하도록 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방문·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필요물품 지원 및 서비스 연계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7~8월에는 제주적십자대학생들과 함께 대상 노인가정을 방문해 주거공간을 정비하기도 했다.

한 어르신은 "외로움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이다. 가족들도 나 몰라라 하는데 안부를 물어주고 전화해줘 정말 고맙웠다"며 "앞으로도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해 독거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최우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가 2011년 전국 지역가정

위탁지원센터 평가에서 최우수센터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교수,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지난 6월 실시된 평가에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조직운영 및 관리, 인적자원관리, 재정,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도내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상담, 학습지원 등 정서지원프로그램, 심리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아리경연대회서 구좌동네밴드 장려상



구좌동네밴드는 11월 19일 제주시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 평생학습의 날 동아리경연대회에서 장려상(3위)을 수상했다.

구좌동네밴드는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경희)의 지원을 받아 지난 3월 창단됐다.

홍익아동복지센터 60주년 기념식 성황

홍익아동복지센터 설립 60주년 기념식이 11월 12일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장과 오정숙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장, 자원봉사자, 정기후원자,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성안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기념식 1부에서는 유공자 시상과 홍익아동복지센터 설립 60주년 사업보고 등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홍익아동복지센터의 자량인 홍익핸드벨과이어, 에버그린중찬단, 밴드오브브라더스의 공연과 특별출연으로 Sound of spirit(영의소리), 제주타악기 앙상블, 힙합그룹 DP Crew가 함께했다.



홍익아동복지센터는 2005년 제2회 아동복지시설 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했으며, 2008년 제3회 평가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11월식품 기탁자

▲(주)금강축산유통=육류 303kg ▲서문식품=두부 384모, 콩나물 120봉 ▲김치원=김치 40kg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2ℓ 900개 ▲(사)제주마심=2200만원 상당 물품, 현금 80만원 ▲푸른축산유통=돈육 50kg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유기농채소 60kg ▲(주)삼다유통=삼다수 2ℓ 2000개 ▲아산재단=쌀 200kg ▲손뜻모아봉사회=가래떡 100kg ▲임문범=200만원 ▲CMS후원자=205명 178만원

칼럼



김길웅
수필가·시인

출연자와객석이 하나된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 몽클 그날, 가장 인간적인무대 그 감동의 여운 여전

상식의 범주에 속하는 얘기다. 양지는 별이 바로 드는 곳이다. 별이 잘 들지 않는 음지에선 식물들도 잘 자랄 수 없다.

숲의 전이(遷移)를 보면 분명해진다. 그늘진 데서도 잘 자라는 음수(陰樹)가 있긴 하나 보편적으로 양지에서 자라는 식물이 그 생육상태가 좋다. 햇살이 잘 들어 성장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소나무 같은 양수(陽樹)는 음달에서 자라지 못한다. 햇빛을 받지 못하는 게 이유다.

통하는 게 이치다. 숲의 생태를 인간에 빗대어 보면, 세상이 요지경이란 말을 실감케 된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그늘진 곳에서 빛을 못 쬔 별의 운기를 쬌지 못한 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가.

새삼 '복지'란 말을 떠올린다. 한마디로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미에 다른 아니다. 종래 자유권에 머물러 있던 기본권적인 인권을 확대함으로써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자, 국가에 대

양지

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확립해놓은 것이 '사회복지'다.

오늘의 사회복지란 요 보호자를 사회에서 제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틀을 경제적으로 자립시키거나 신체적으로 재활케 해 생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려 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우리의 사회복지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나마 정책이 복지를 화두로 삼고 있으니 일단 마음이 놓이긴 한다. 복지가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이루려는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 수준 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내 진단이 실상에 접근한 것이기를 기대한다.

지난 9월 7일은 제12회 사회복지의 날이었다. 자축 행사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가 열렸다. 사회복지시설과 단체가 내놓은 10개 팀의 경연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밴드, 악기연주, 난타, 뮤지컬, 연극, 댄

스에 이르기까지 애써 올려놓은 어린 출연자들의 무대. 그들 대부분이 재활 과정의 장애인이라 자체가 콧잔등을 시큰하게 했다.

심사위원으로 무대에 오른 공연을 보며 가슴 뭉클했던 것은 관중의 뜨거운 호응이었다. 작품성을 떠나 무대와 관객이 하나 되는 공감의 물결이 리듬을 타고 장내에 넘실댔다. 현장에서 나는 사회복지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였다. 여러 차례 큰 박수를 보내고, 집에 와 '양지'란 글 한 편을 썼다.

"하늘이 무심치 않아 사시정철 별 잘 들면 무풍하다. 생명들, 오종종한 것들도 잘 자라는 곳. 꿈틀거리거나 뒤척이며 명랑한 햇살 아래 덧옷 껴입지 않아도 온전한 생존들, 그들의 축제 한마당, 무대와 객석이 하나다. 가령, 그들 앞에 설한(雪寒)이 닥쳐온다 해도 흠바른 구들 아랫묵은 따스다."

나는 지금도 그날, 그들의 가장 인간적인 무대, 그 감동의 여운 속에 있다.

기고

복지체감 향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



김성훈

사회 복지 공무원으로 복지 업무를 시작한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국민들을 위해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과 달리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복지 체감은 낮은 편이다.

간혹 지역주민들은 우리나라 복지의 흐름에 대하여 궁금해 하며 걱정 어린 목소리와 불만의 소리를 섞어 내어놓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때마다 현장 속에 몸담고 있는 복지사로써 이해와 소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만, 한편은 정말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에 속하는 보육료지원사업과 노인 복지에는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 그리고 장애인복지에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및 장애인연금 등 많은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복지체감이 낮은 이유가 뭘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

이 생각하는 복지와 정부에서 생각하는 복지가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는 나누어 주는 공급체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문제가 아니라 작은 파이를 가지고 수혜자 입장에서 욕구와 충족의 정도를 고려해서 공급한다면 입장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30년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복지의 최우선이었으나, 지금은 문화생활 등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어느 강의에서 들은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 우리나라 복지는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 나 또한 그 말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선진국에 비해 복지에 투자되는 예산은 적은 편이지만, 반면에 선진국에서도 하지 못하는 복지를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현실에 대해 스스로 낮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한 진단과 조정을 통해 명확히 한다면 국민들의 복지 체감은 더욱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경면사무소)

노인일자리 사업을 마무리하며



이은주

2011년 3월 8일부터 시작한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난 10월 말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마무리 되던 날,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한 어르신께서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시며 "여직원, 일자리가 끝나난 막 서운하다. 앞으로 뭐 먹고 살자는지...", 혹시 추가로 더 할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하시며 아쉬운 여운을 남기셨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했던 어느덧 2년째. 2010년에는 34명, 2011년에는 47명이 이도2동 노인일자리 환경지킴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파서 중도 포기하신 분, 손자들을 돌보아야한다고 중도 포기하신분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었는데 어르신 모두 하나같이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가실지 속상해 하셨지만 본인들의 현실을 받아드리실 수밖에 없었다.

올해 8월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주된 동기로 생활비(생계) 마련을 위해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근무환경·근무시간 등은 대부분 만족하셨지만 현재 받고 있는 월 보수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표시하셨다.

주 4회, 월 3시간을 근무하여 월 20만원을 받고 있으신데, 근무시간을 늘려서라도 월 보수액이 최소 30만원, 최대 50만원까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적으셨다.

우리동 노인일자리 만족도 조사 결과만 봐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여러모로 많은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생계가 곤란하여 월 보수가 늘고, 사업기간 또한 길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셨다.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조금이나마 윤택한 삶을 지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은 일자리 만족도 조사와 일자리 사업 신청을 받을 때만 봐도 알 수 있었기에 우리네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아동안 전보호, 문화재해설지킴이, 숲 생태해설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일자리 근무 시간을 좀 더 늘려서라도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도2동주민센터)

❖ 국가인권위 설립 10주년 기념 토론회-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자기 선택권 행사 못해 권리 보장 못받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설립 10주년 기념 토론회-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가 11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1부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 그 성과 및 발전방안’과 2부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방안’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본지는 월페이퍼뉴스의 기사를 제공받아 토론회 내용을 소개한다.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 그 성과 및 발전방안’에 참여한 울산대학교 홍진표 정신과 교수, 국립나주병원 배안 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심상돈 국장,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조형석 팀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황태연 정신보건이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유동욱 사무관. <사진 왼쪽부터>

정신장애인 인권 보장기관은 인권위밖에 없어 복지부와 기타 기관 협력·공조로 전략 마련 필요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 조형석 팀장은 2001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된 ‘정신보건시설 관련 유형별 진정실태’를 발표했다.

조 팀장은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핵심추진과제별 이행여부 현황에 따르면 △자의입원 원칙 명문화 △경찰관과 구급대원의 환자 호송 의무 강화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고지 의무 강화 △입원환자의 자유권 제한 엄격화 △면회·통신의 자유 제한 요건 및 목적 명시 △격리·강박의 목적 명시 및 기준 강화 △정신보건센터 설치 강화 및 기능 재정립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정신장애인 업무 적격성 심사 규정 신설 등은 정신장애인의 국가보고서의 핵심추진과제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권고사항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진단입원’과 ‘치료입원’의 구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계속입원심사 기간 단축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도 공공이송체계 도입 등 주요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은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나주병원 배안 원장은 “정신장애인 인권문제는 정신

보건전달체계에 있는 것이지, 시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 원장은 “만성 정신장애인의 잦은 입원횟수와 장기간의 입원기간으로 표현되는 적법절차의 만성적인 인권침해는 ‘만성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자의 보호의무 이행능력’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만성 정신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경제적 취약계층이란 점에서 지속적으로 보호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1993년 발표된 호주의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국가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을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일한 권리를 지닌 인간으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취약성을 고려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했다”며 “보호의무 이행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울산대학교 홍진표 정신과 교수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자기의 선택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기관이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정신장애인의 인

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은 인권위밖에 없다”며 법제화 및 법원 판례를 통해 정신장애인 인권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것, 인권위 권고사항 및 사례 등 인권교육자료를 만들어 교육할 것, 인권위 안에 정신보건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황태연 정신보건이사는 “단지 권고로 끝나서는 아무런 실행 효과가 없다.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정부 각 부처나 관련 기관에서 아무런 실행 계획이 없다. 한 쪽에서는 ‘이행하라’고 공격하고, 한 쪽에서는 ‘안 한다’고 막고 있는 ‘창과 방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이사는 “정신장애인을 위해 직업과 주거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낮다”며 “다양한 공공·민간·NGO(비정부기구)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과 협력하고 공조해 전략을 마련할 때”라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유동욱 사무관은 입·퇴원의 문제와 같은 미시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무관은 “일단 나올 수 없으면 인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

하는 자체가 힘들고, 당장 지역사회로 나온다고 해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나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인권위의 권고와 더불어 복지부 및 관련 기관이 구체적·전략적 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다.

이천정신보건센터 최용성 센터장은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기능 및 역할재정립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퇴원통보와 관리현황 점검 및 연계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퇴원 후 사후관리체계에 필요한 정신보건센터 역할의 기능 개편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공공성이 확립될 수 있는 법인화 추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업무를 정신건강증진업무와 만성정신장애인재활업무 분리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옹호활동 적극 지원 △외래치료명령제에 대한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 △주거 및 직업재활에서 지역정신보건센터 자체

의 경쟁력 확보를 주장했다.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문용훈 회장은 지역사회 실천과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신보건센터의 체계와 사회복지시설의 직접적인 서비스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의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 발생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자활과 재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정신장애인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이영문 단장은 정신보건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이 단장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정신보건 영역의 단순한 장기 입원 문제만이 아닌, 탈시설화 운동과 궤적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방안’에 참여한 이천정신보건센터 최용성 센터장,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문용훈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심상돈 국장,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이영문 단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기연 교수, 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사무총장. <사진 왼쪽부터>

Passion for Ideas



Business

디자인 · 인테리어 · 실사출력 · 인쇄 · 옥외광고

본사.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58-12 한화빌딩 3F
공장. 제주시 화북 1동 1272-1
T. 064)753-7482~5 F. 064)753-7487

www.webhard.co.kr
id/pw : bananaj

Banana Ad
바나나애드